

GOOD NEIGHBOR MINISTRY

Vol. 106 / Oct. ~ Dec., 2018

선한 이웃 선교회

www.goodneighbornj.org

December 3, 2018

“매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성탄 축하의 문자를 주변 지인들과 자주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더욱더 즐겁게 서로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와 어둠에 갇힌 영혼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유에 뉘어지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창피하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순과 문제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이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흉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약속, ‘임마누엘!’

사랑하는 선한 이웃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모아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빛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희망의 2019년에도 각 가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s we move toward Christmas, we take the time to send Christmas greetings to share the joy with our friends and families. Indeed, there's no more festive time of the year than Christmas! So, what makes the season so joyful? I believe that the important reason for why we rejoice is because at the center of the Christmas message is a God of love who desires to be with us. That's right! God wants to be with us despite our sinfulness and lack of faith. Jesus left heaven to live on earth with us and he is here to stay regardless of our iniquities. Therefore, we rejoice!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which means “God with us”). (Matthew 1:23)

Beloved! When Immanuel arrives again on this Christmas day, I hope that we become more aware of God's love for his people and continue to serve our neighbors with his grace and mercy. It's my honor and privilege to serve with all the Good Neighbor families and I pray that God's love, peace, and hope be with you in the New Year.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very happy New Year!

In gratitude,
Joon L. Chung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선한 이웃 선교회 미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 (시편 146:1-2)

「미국 노인 복지 홈」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넬싱홈」은 주로 육신의 기력이 쇠진하여 홀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처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거처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양로원인 「넬싱홈」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더불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이웃 선교회의 「평신도 양로원 선교사업」입니다.

Coming Events

1/4/2019(금) 11:00 AM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 예배
포트리 베다니 교회

6/15/2019(토) 7:30 PM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

Good Neighbor Ministry
P.O. Box 110
Closter, NJ 07624
Tel. 201-759-5688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Transcendent

Going into the Good Neighbor Ensemble, I expected to enter your everyday youth orchestra, and at first, it seemed to be exactly that. I was a new member, slightly intimidated and lost amidst the more experienced members. Being that I was unfamiliar with the music, I put most of my effort toward learning all the notes impeccably and did not put much effort toward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music. It was not until I began performing at nursing homes that I realized how special the Good Neighbor Ensemble is.

One nursing home performance in particular really struck home with me. After our regularly scheduled performance concluded one day, the orchestra was packing up to leave when one of the nursing home staff came over to us and asked us if we would be willing to play for the Alzheimer's residents on the lower floor. Naturally, the orchestra agreed to play. Entering through an alarmed door that prevented residents from wandering from the room, we were met with the dull, blank stares of the Alzheimer's residents. My heart broke for these seniors and I prayed that they would find some joy in our performance. The orchestra decided to play just two songs: Somewhere Over the Rainbow and God Bless America. While playing God Bless America, one of the staff asked an Alzheimer's resident to sing God Bless America for us. She began to sing with such passion and excitement, and surely enough, more and more residents began to join in. Witnessing the onceloof Alzheimer's residents suddenly become revitalized simply because of music was a truly beautiful moment that sticks with me to this day.

That day, I left the nursing home feeling extremely blessed to have seen such a heartwarming example of music's incredible ability to transcend the barriers of disease



The 19th Anniversary Good Neighbor Ministry Benefit Concert

첫 눈

하나님도
처음이라는 말이 설레었나요?
'당신이 처음입니다' 입술을 열고
내리는 첫눈을 바라봅니다

처음 내린 눈은 흩날림처럼 가벼워
만지면 금세라도 꽃을 피울 것처럼
사뿐히 언 땅을 감싸 안아 줍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생애 가장 홀가분한 영혼으로
어둠 속 별이 되어 빛나곤 했습니다
아이같이 맑은 눈동자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씀 하나에도
두 뺨이 꽃잎처럼 붉어졌습니다

나의 사명은 첫눈처럼 다시 그를 맞는 일

하나님은 첫사랑을 까맣게 잊고 산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길을 내주려 해도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첫눈을 맞으며 오래 기다린
그의 손을 잡아봅니다 뜨거운 눈물
첫사랑을 고백합니다

김 은자 권사/시인

and touch our hearts. Since then, each rehearsal and performance has held a special place in my heart and I find myself growing more empowered to share God's unfailing love through the wonderful gift of music.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the Good Neighbor Ensemble for allowing me to bear witness to the amazing effect that music has on us, and I would like to thank our heavenly Father for bestowing upon us the musical talents that enable us to expand his kingdom and glorify his name.

Danyoung Kim
Good Neighbor Ensemble
Bergen County Academies/Senior

색 소 폰 과 양 로 원

제가 색소폰을 가지고 양로원 봉사를 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색소폰을 배우고 싶었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시절 친구들과 놀러 간 곳에서 우연히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색소폰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집에 오자마자 그 악기를 불고 싶은 마음에 나름 새것은 비쌀 것이니 중고라도 하나 사달라고 해야지 마음을 먹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넌방에 가서 거기 있는 큰 가방을 가져와라!” 하시기에 얼른 가져다드리니 “네가 나팔을 불고 싶으면 네 물건 모두 그 가방에 싸서 집을 나가라!”라고 크게 야단만 맞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의 반대에 배우고 싶었던 마음을 접었던 저는 그 후 미국에 이민 와서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색소폰을 배우는 것을 보고 그 옆에서 독학으로 배우게 되면서 비로소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가요를 연주하며 취미로 즐겼지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교회 찬양 팀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성가를 연주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취미로 가요나 불렀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악기가 되고 저도 제 취미밖에 되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양로원에서 주님을 위해 불쌍하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 연주를 하게 되니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읽은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평생을 땅만 보며 떨어진 것을 주우며 산 결과 동전 1,509개, 단추 655개, 못 708개, 구슬 50개 등을 모을 수 있었지만, 땅만 보고 평생 걸은 대가로 허리는 완전히 구부러져 휘었고, 가슴이 좁아져 협심증, 심부전증 등의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

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허리를 펴고 걸으면서 아름다운 하늘과 경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허리도 꼳꼳해지고 심장과 폐도 건강하며 멀리 높이 바라보아 눈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로원에서 봉사하다 보면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어떤 때는 몇 분밖에 참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는 동시에 제가 색소폰을 연주하면 그때부터 색소폰 소리를 듣고 하나, 둘씩 참석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님을 따라 동네 시장을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악을 파는 장사가 아주 흔했습니다. 악장사는 악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야 하니 우선 나팔부터 크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팔소리에 악장사 주위에 모여들곤 하였는데, 지금 양로원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것이 그것과 비슷해 웃음을 머금곤 합니다.

선교회의 양로원 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양로원 노인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창 기독교가 부흥되었을 때 자라나신 분들이라, 이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셨지만, 양로원에 계시면서 교회도 갈 수가 없고, 현재 미국교회가 사양길이라 교회 자체에 목사님이 부족해, 목사가 직접 양로원을 찾아와 예배를 드려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국 양로원은 교회에서 직접 나와 예배를 보지만, 미국 양로원은 우리 선교회에서 하는 예배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Woodbridge의 미국 교회에서 색소폰 연주를 부탁받고 갔었는데, 그곳도 목사님이 없다가 한인 1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맡아서 하고 계신 형편입니다.

오랫동안 봉사해 온 Tenaflly 양로원에는 예배 시간 내내 눈을 감고 아무 표정도 소리도 없이 앉아만 있는 시각장애인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찬양 도중에 “할렐루야!”라며 외치고, Amazing Grace 노래도 따라 불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맑은 선율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로원 봉사가 끝난 후 떠나려는 제 손을 여러 할머니가 꼭 붙잡고 “God Bless you!” 하며 흔들 때마다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며, 무겁던 색소폰 가방이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주일마다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at Tenaflly

이 문 웅 장로
Buckingham at Norwood(1st Fl.), Sunrise of Cresskill,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at Tenaflly



Photo Gallery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Hillsdale House



은혜양로원



Buckingham at Norwood (1st Fl.)



Sunrise of Paramus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Buckingham at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Chuseok Festival 2018



CareOne at The Cupola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Norwood (1st Fl.)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New Bridge Medical Center Psych Ward



At Esther Jang's Wedding



Where's the Beef?

There's a commercial from the 1980's I think of from time to time. It's where an old lady complains of the size of her hamburger patty and states, "Where's the beef?" No, it's not because I'm big on meat (well, maybe just a little), but I often want to ask God this question, "Where's the fruit?" whenever I wonder if the area where I'm serving really matters in the big scheme of things and is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s followers of Christ, we know that in terms of fruit, God is the one who does all the producing; we just need to be available and obedient to the calling. However, if I'm being completely honest, there have been times in my life when I've felt frustrated from the lack of fruit or the rate at which it grows in the lives of others I seek to help. Despite the effort I've put into "watering" it, I seldom see blooming flowers. It's more like slim stalks wavering in the wind. And with this frustration come discontentment, complaint, and guilt. (By the way, these attributes are all contrary to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so this leads me to repent, but the cycle repeats nonetheless: work hard, complain, repent, repeat.)

As I was alone at home finishing up my Bible study the other day however, I came across a passage from my book that really spoke to me:

"We all experience days when we're pulled in so many directions that we feel as if we haven't accomplished anything of value. But the gospel can help us define our life goals and narrow our focus to what's important so that we know where we should spend our time and energy. If we determine to prioritize our lives according to what will expand God's kingdom in our individual spheres of influence, then we will have more days that are purposeful and fewer than aimless." (1 and 2 Corinthians Community Bible Study)

I realized that the question I've wanted to ask God, "Where's the fruit?" is normal, but rather than stay in my current state of quandary, I needed to re-access my current commitments and where I'm feeling "fruitless," ask Him for direction if where I am serving is where He wants me to be. Furthermore, I need to take the time to evaluate my purposes for serving since sometimes, they could be for the wrong reasons. For example, I stayed in an organization for more than seven years because of an obligation I felt that I "ought to do", but as my husband kept reminding me, "God loves a cheerful giver" (2 Corinthians 9:7 ESV), I finally found the courage to quit, and I felt as if a weight had been lifted off my shoulders the day I went through with my decision. Hence, this verse can pertain not only to our financial giving but also to the giving of ourselves in ministry service.

On the flip side, if you know that the ministry where you are apart of is where God wants you to be, but you don't see the fruit, take heart since the fruit will come, just not in your timing and perhaps not in your lifetime. Personally, whenever I think of the Good Neighbor Ministry, I am truly grateful because it is an answer to prayer. As a teenager, I had prayed for numerous opportunities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and through Good Neighbor, He has provided. True, I hadn't ever imagined that my sharing would be in a nursing home twenty years later, but it's an answer to prayer nevertheless, and I love that I can share His message each week. Furthermore, this ministry has given me the boldness to share the Gospel outside the nursing home. Never once have I felt obligated to share. It's a privilege, and the fact that I can serve with a group of amazing women (as well as my mom) who all love Jesus is just icing on the cake.

In closing, during this season of Advent, as a fellow servant of Christ and a Good Neighbor Ministry member, I encourage you, reader, to evaluate your commitments to see if there is any fat you need to cut off in your life. Why? Because by cutting off the fat, you can more readily enjoy the beef. And by thoroughly enjoying the beef, you won't be too concerned about the fruit or the lack of it.

Maria Kim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Scholarship Awards
- Mail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Steven Kang

수입: \$150

총수입: \$31,550

총지출: \$15,000(장학금 수여)

선교회 소식

- ◆ 2018년 연말 사역은 12월 21일(금)까지 마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 ◆ 2019년 1월 4일(금) 11:00AM에 포트리 베다니교회에서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든 봉사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30 Main Street, Fort Lee, NJ)
- ◆ 2019년 새해 사역은 1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차질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탄을 맞이하여 양로원에 증정할 스카프와 모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임원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물 구입을 도와주신 Hana Universal Trading, Inc.(모자), Lava Accessories(스카프), 정성껏 손뜨개로 무릎 덮개와 털모자를 준비하여주신 Jo Anna Myung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YouTube Channel을 통해 선교회의 자료와 창립 기념 자선음악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Good Neighbor Ministry를 검색하시면 선교회 채널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선교회 관련 영상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난 6월에 있었던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 ◆ 방학 때마다 찬양 사역을 도와주는 선한 이웃 앙상블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교 회원 동정

- ◆ 10/27 장현경 자매 결혼
- ◆ 10/11 Issac Looor 탄생: 임세란 사모 손주
- ◆ 박성길 선교사
11/18-11/28/2018 Kazakhstan 2개 지역 각각 3일 복음 집회
1/10-1/31/2019 Cambodia 3개 지역
3/15-3/29/2019 Dominican Republic/Haiti
- ◆ 이예리사 사모 - 11월, Kenya 선교
- ◆ 12/25/2018-1/1/2019 선한 이웃 앙상블(GNE) 요르단 음악 선교 참가자: Joon Chung, Soo Jin Lee, Dongmin Kim, Joo Un Lee, Eon Soo Lee, Yoon Joo Cho, Christy Chang, Se Bin Bok, Eugene Jeeyong Jang, Daniel Hyunsung Son, Noel Cho, Sungwon Yim, Soo Min Kim, Joon Sung Kim, Sei Kyoung Kwak, Joseph Tae Lee, Kwang-Hyun Chung

후원해 주신 분들(2018년 9월 ~ 2018년 11월)

베다니 교회, Joy Church, 초대교회, 정혜령,
임미영, 서연희, Lee(Brookdale Emerson),
New Bridge Medical Center Psych Ward

수입: \$14,947.00

지출: \$26,338.92

기 도 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한 기도
- 새로 시작한 Brookdale Emerson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앙상블 단원들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앙상블(GNE) 요르단 음악 선교를 위한 기도
- Philadelphia South North Central 성탄 연주를 위한 기도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장 로: 박성길

집 사: 김진옥, 정준임, 정종은, 김금화,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Brenda Cho, Maria Kim, Jeannie Hwang,
Paul Dunn, Amanda Bae, Susan Lee, Sue Lee,
Hyunmee Kaylie Lee

전도사: 이승진, 이예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박성길 장로 (순회 선교사)

박문희 집사 (중국 선교)

김성은 선교사 (아이티)

김재문 / 김유진 선교사 (요르단)

양부환 / 양수정 목사 (파라과이)

† 건강을 위한 기도

서울옥 권사(건강 회복), 김종헌 목사(부모 건강),
박미성 자매(교통사고 회복), 서성원 집사(척추수술 회복),
Brenda Cho(관절), 최성아 집사(녹내장),
김학영 권사(어지럼증), 김진옥 집사(모친),
어혜숙 권사(건강 회복), Jeannie Hwang(부친 & 모친),
정은영 사모(건강 회복), 박경옥 권사(건강 회복)
Sean Lee(건강 회복)

※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 선한 이웃 선교회 소식지: 주님 안에서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회 정규 활동 일정

Day	Place	Volunteer
월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1 st Fl.)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송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장병찬 집사(드럼)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이에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선생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Sue Lee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Amanda Bae 집사/Susan Lee 집사 인도, Josiah Chung 목사(말씀),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한소망 요양원	정준은 집사 인도, 장현경 자매 반주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Jeannie Hwang선생/설국환 전도사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장병찬 집사(드럼)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이명옥 권사 인도, 이연옥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한자경 집사 반주
	Brookdale Emerson	조미경 집사 인도, 최성화 집사 반주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최애경 권사 반주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Brenda 조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Soo Park 선생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양로원	이명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김영선 집사 인도, 이해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Hyunmee Kaylie Lee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Paul Dunn/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 집사 인도, Soo Park 선생 반주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양상블 단원 동정

2019 National YoungArts Winners

- Seog, Daniel: Classical Music/Violin (Finalist)
- Ku, Heechan: Classical Music/Violoncello (Honorable Mention)
- Kwak, Donghyun: Classical Music/Violin (Merit)
- Kim, Soomin: Classical Music/Violoncello (Merit)



양상블 특별 활동 행사 일정

양상블 연주 일정

12월 01일(토) 2:15 PM Oakland Rehab & Healthcare Center
 12월 06일(목) 6:00 PM Christmas Tree Lighting at Closter
 12월 08일(토) 5:00 PM Church of the Advocate, Philadelphia
 12월 15일(토) 2:00 PM 은혜 가든 양로원
 12월 16일(일) 11:00 AM Sunrise of Paramus
 12월 22일(토) 2:00 PM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양상블 행사 일정

12월 17일(월) 6:00 PM Christmas Party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12월 24일(월)~1월 1일(월) Winter Break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2018년 12월 25일(화)~2019년 1월 1일(화)
 선한 이웃 양상블 요르단 음악 선교

2019년 1월 4일(금) 11:00 AM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 예배
 포트리 베다니 교회
 430 Main St., Fort Lee, NJ

2019년 6월 15일(토) 7:30 PM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6 South Monroe St., Ridgewood, NJ 07450